

가정 복지의 생태학적 접근*

An Ecolog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Family Welfare: A Review of Literature*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윤종희

Dept. of Family Welfare & Community Services,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 : Yoon, Chong-Hee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IV. 생태학적 접근의 국외 개입 프로그램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생태학적 접근의 국내 연구사례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eview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and intervention programs designed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in dealing with issues on family welfare. This study cites several research evidence that indicates why an ecological model is a relevant alternative to investigate issues in family welfare. The strengths of the ecological approach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based on the review of literature.

주제어(Key Words): 가정 복지(family welfare),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 개입 프로그램(intervention program).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한국 사회는 현재 서구의 선진국들이 수 백년이 라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응해온 사회 변화를 30여 년이라는 단기간에 압축하여 경험하는데서 오는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전통 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 로기가 그대로 존속되는 상황에서 근대 산업화 사회 의 혁신적 기술 및 이에 수반되는 가치관과 생활패 턴이 검증되지 못한 채 도입되어 있다. 결과 양자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공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 본 논문은 동덕여자대학교 연구년 제도의 지원을 받은 과제입니다.

러한 혼돈과 갈등 상황에서, 그 형태와 양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가족문제이다.

우리 나라 가족문제의 대표적 유형은 전통적으로 생계, 자녀교육, 역할 및 기능 결손에서 파생되는 구조적·기능적 문제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방치되는 아동, 방황하는 십대, 증가하는 이혼율의 성인 세대, 소외된 노인 세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심리적 결손 및 가치관 혼돈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은 세대를 초월한 혼란과 무질서를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가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별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관련되는 문제의 맥락 내에서 사회 차원에서 개입하고,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사회는 가족이 정상적인 복지 기능을 가지고 존재할 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가족 기능을 건강하게 회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검증된 가정 복지 차원의 대안 제시이다.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여성 문제, 노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가정 복지가 강화될 수 있다면 개인의 복지는 물론 가족 복지까지 이루어지는 일석이조의 복지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대안은 개별 가족원을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가족을 중심에 두고, 문제가 일어난 개별 가족원에 대하여 가족이 주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전체로서의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이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개입은 가족 해체도 예방하고 시설 수용보다는 비용 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여러 측면의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사회는 가정의 보호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측면의 지원이란 가족이 연관을 맺는 사회의 여러 체계들이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미시적 차원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외에도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자를 포함하는 민간 자원의 발족과 연결 및 협조, 이러한 직접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지원, 법·정치·경제 제도 등의 제도적 뒷받침,

매스컴이나 전체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가족 중심 분위기, 부부 중심의 사랑, 차세대 양육의 중요성, 경로·효친 사상 등 사회의 여러 체계들의 지원은 사안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현대 가족이 처한 가족 문제 중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여성 문제, 노인 문제 등 개별 가족 구성원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함에 있어, 이들 문제와 관련된 사회의 여러 미시적, 거시적 체계가 동시에 고려되는 한편, 사회의 개입이 가정 고유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정 복지 관련 쟁점들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조망될 수 있도록 문헌 고찰을 통하여 연구 사례 및 개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인 시도는 관련 연구자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접하게 해주는 동시에 실천적·정책적 쟁점들에 요구되는 조망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이론적 기초 자료를 부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사회 복지 전문직에서는 인간과 환경을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환경 속의 인간'이라 간주한다(김동배·권중돈, 1999). 이 관점은 인간과 환경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영역과 양자간 교류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첫 두 단원에서는 가정 복지 사업의 개념과 기능을 정의하고, 다음으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공하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 모형과 이 모형을 사용한 국내의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단원에서는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유기체 특성과 환경 조건을 하나의 생태계로 간주하여 이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 시도된 개입 서비스가 전개된다. 이들 과제에서 제시되는 생태학적 접근은 생태 체계의 지원으로 가족 또는 개별 가족원의 기능이 강화되고, 역기능이 순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인과 과정을 재조명해 주리라 본다.

1. 가정 복지 사업의 개념과 기능

본 연구에서 가정복지 사업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특정인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가족(family as a whole)”을 대상으로 개인 및 가족 생활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회가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고 가족 생활을 강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사회의 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성영혜 외, 1998; 조홍식 외, 1997). 이 정의는 가정복지 사업의 대상은 김양희(2000)의 ‘한 단위로서의 가족과 그 가족의 가정생활의 향상’이라는 관점에 내포된 ‘확대 개념의 가족이나 가정성’을 지닌 집단까지 포괄하며, 또한 전통 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생활 단위의 기능을 지지, 보충, 대체해주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국 사회 사업가 협회(NASW, 1995)에서 정의한 가정 복지의 주된 목적은 가족 구성원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정 생활의 적극적인 가치를 살려 구성원 개개인의 건전한 인품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만족스럽게 성취하도록 기여함에 있다.

가정 복지 사업의 기능에 대하여 장인협(1981)은 (a) 사회 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의 적극적 수립 (b) 가족 분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보호나 거택 보호의 개발 (c) 핵가족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족 생활 교육의 실시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정 복지 사업의 기능은 제도적·정책적인 거시적 노력과 기술적 방법적인 미시적·보충적인 제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2.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의 생태학¹⁾

생태학 모형은 기존의 환경 요인(예: 사회 계층, 가족 규모, 출생 순위, 도시 농촌 등의 거주 지역, 성별, 종교, 결혼 여부, 편부모 여부, 부모 취업 여부, 부모 재혼 횟수 등)만을 강조하는 연구나, 유기체의 특성 요인(예: 대상자의 과거의 성격 특성과 현재의 성격 특성의 인과 관계)에만 초점을 두는 기존

연구의 접근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사회사업 실행 모델로서 환경 또는 유기체 특성만을 보는 위의 두 모델은 한계가 있다. 생태학 모형은 인간·환경 맥락 그리고 과정까지 포함하며, 클라이언트의 상황적 맥락을 포착할 수 있는 생태학적 소영역(Ecological Niche: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점유하는 공간이나 지위)을 발견하는 데 주력한다. 이 모형은 인간과 환경간 호혜적인 상호 의존성을 규명하여 그 둘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려 시도한다.

다음에 전개되는 세 개의 연구 사례는 (a) 미혼모의 미숙아 출산을 예측해 주는 생태학적 소영역 발견사례, (b) 청소년의 약물사용을 촉진/저해하는

1) Bronfenbrenner(1979)는 인간발달의 생태학을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인간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간 일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조절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라 정의하였다. 원래 생태학은 생물학적 유기체와 그 주변의 사회 물리적 환경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상호 의존적인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생물학자인 Germain과 Gitterman(1987)은 유기체의 적응이 환경과의 적합성(Goodness-of-fit)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능동적 행동의 결과라고 하였다. 인간도 다른 유기체의 생물학적 적응과 마찬가지로 ‘인접과정(proximal process)’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 큰 생태계에 적응한다. 이러한 과정을 조망해주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 모형은 인간과 동시 작동되는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적·통합적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그는 인간 발달의 생태학 모형 안에서 상호의존적, 동태적 접근 모형(“nested” model)을 제안하고 네 개의 환경체계--미시 체계(microsystem), 중간 체계(mesosystem), 외 체계(exosystem), 거시 체계(macrosystem)--를 개념화하였다. 이 네 체계는 가족 내 부모-자녀 상호 작용과 같은 인접 과정(미시 체계)에서부터 법률, 정부, 정책, 문화 등 광의의 사회 배경(거시 체계)까지 포함하는 영향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중간 체계는 여러 개의 미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외 체계는 유기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체계로 정의된다. 각각의 영향력은 상호 호혜적 방식으로 작용하나, 그 관계와 영향력은 개체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신생아는 최근접 환경인 미시 체계만을 인식하나,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은 직접 경험하는 것 이상에 대해 사고하는 능력이 생김으로써 외 체계와 거시 체계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중간 체계의 상승적 효과, 그리고 (c) 아동의 외 체계가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이 연구 사례들을 인용하는 목적은 생태학적 접근법이 기존 연구 접근법과는 달리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 능력이 있음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1) 생태학적 소영역: 미혼모의 미숙아 출산

이 연구 사례에서 Bronfenbrenner(1988)는 인간·환경 맥락·과정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밝혀 미혼모의 복지와 미숙아의 복지를 위하여 실천가들이 개입해야 할 방향을 시사해주고 있다. 미숙아(2.5kg 미만)를 출산할 확률이 큰 임신부의 생태학적 소영역은 Bronfenbrenner에 의해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첫째, 환경 변수로는 임신부가 (a) 도심 내부에 거주하고, (b) 미혼이며, (c) 고졸이하 학력인 경우(세 개의 환경 변수), 둘째, 개인 특성 변수로는 임신부가 (d) 십대(13세-19세)일 경우 미숙아 출산 확률은 두 배로 증가하고, (e) 흑인일 때 이 확률은 다시 한 번 배가 된다(두 개의 개인 특성 변수). 다섯 요인을 조합하면, 어떤 여성이 미숙아를 출산할지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생태학적 소영역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Bronfenbrenner는 과정 변수를 첨가하였다. 즉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똑같은 두 여성 중 한 명은 정상아를 출산하고, 다른 한 명은 미숙아를 출산하였다면 이 두 사람을 구분하는 특징은 무엇인가?

생태학적 모형은 이러한 과정 지향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시도한다. Bronfenbrenner의 과정 지향적 자료에 의하면 임신부가 (f) 출산 전 보호를 일찍 받을수록 미숙아 출산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 그리고 임신부가 (g) 출산 전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을 때 미숙아 출산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임신부의 연령(십대), 인종(흑인), 결혼 여부(미혼), 교육 정도(고졸이하), 거주지(도심)라는 환경 변수 및 개인 특성 변수 외에 미숙아 출산을 방지할 수 있는 더욱 결정적인 과정 변수는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출산 전 보호의 시기와 질이다. 개입 측면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사실의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환경 맥락 변수, 개인 특성 변수와 더불어 과정과 기제에 초점을 맞추는 생태학적 접근법은 개입, 교육, 치료, 공공 정책 수립에 있어 더욱 타당하고 유용하며 효과적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덧붙여 생태학적 모형의 효과는 미숙아와 그의 출생 후 발달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미숙아라는 개인 특성에서만 보면 이 아기는 신체의 성장, 질병에 걸릴 확률, 지적인 발달, 지적 잠재력을 이용하는 능력, 행동 능력, 학교 생활 적응 등에서 매우 열악한 성장기를 보낼 거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과정 변수인 어머니 양육의 질,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작용, 가족의 건강 습관, 일반적인 가정 관리, 자녀 양육 등의 과정 변수가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h) 어머니의 양육이 더 효과적일수록 미숙아 자녀의 연령이 더 어릴 때에는 자녀의 성장 발달이 더 향상될 수 있다는 발견을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기꺼이 노력할 의지와 실천 능력이 있는 자녀들의 경우, 어머니가 수행하는 과정 변수가 미숙아가 직면하게 될 발달 위기를 훨씬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생태학적 모형을 사용한 연구가 규명하는 조사 결과는 실천가 및 정책 입안자들의 개입이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시사해준다.

(2) 중간 체계의 상승적 효과: 청소년의 약물사용

생태학적 모형이 개입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보면, 청소년의 약물 남용에 대한 Kandel(1986)의 연구 결과는 중간 체계의 상승적 효과를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Kandel은 가족 가치관과 또래 가치관이 일치될 때 청소년의 약물사용이 증가되는지 또는 감소되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Kandel의 연구 결과는 매우 간단 명료하게 요약된다. 만약 부모(음주)와 친구(마리화나) 모두 약물을 사용한다면 청소년의 70%가 마리화나를 피울 것이고, 만약 친구만 마리화나를 피우고 부모는 건전하다면 청소년의 58%가 마리화나를 피울 것이다. 만약 친구는 건전하고 부모만 음주를 한다면 청소년의 22%만 마리화나를 피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나 친구 모두 건전하

다면 단지 12%의 청소년만이 마리화나를 피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족과 친구 모두 건강한 미시체계에서 청소년이 홀로 탈선하여 약물을 사용할 확률은 10명 중 1명 꼴이나, 부모와 친구 모두 불건전한 가치관을 가졌다면 이 확률이 무려 7명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부모·친구 각각의 미시 체계간 상호 작용인 중간 체계의 가치관이 건전한 쪽으로 일치할 때와 불건전한 쪽으로 일치할 때의 상대적 영향력은 상승 효과(Synergy Effect)를 보인다.

Kandel은 같은 연구에서 친구와 부모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마리화나 사용 뿐 만 아니라 청소년의 음주 행동에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증명함으로써 생태학적 접근법의 효과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위에서 묘사된 순서는 동일하며, 변동된 비율은 61%, 52%, 39%, 31%이다.

(3) 자녀의 외 체계: 어머니 취업의 영향, 아동 학대 발생 및 예방에 대한 영향

생태학적 접근법에서는 직접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는 질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여러 접근법에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실패했지만 생태학적 접근법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그 영향력을 규명하였다(Muuss, 1996).

- ㉠ 어머니 직장의 특성, 즉 일에 대한 태도, 직무 만족도는 어떠한가?
- ㉡ 어머니 취업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어떠한가?
- ㉢ 어머니 취업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행동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 ㉣ 어머니 취업의 동기가 재정적인가, 자기 계발적 욕구인가?
- ㉤ 어머니 취업의 영향이 자녀의 성별, 연령, 출생 순위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이 외에도 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에서는 외 체계 변인이 영향력 있는 요인임이 밝혀졌으며, 그 중요성 또한 크게 시사된다. 주거 환경의 열악함, 실직, 만성적 빈곤 등 아동에게는 외 체계 요인인 이러한 변수가 존재하는 곳에서 아동 학대가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요인들은 흔히 부모조차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편 또 다른 외 체계 요인인 활발한 친족 지원망, 교회 출석 여부 등의 변수는 아동 학대의 발생 확률을 줄여주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아동 학대의 발생요인과 예방 요인 모두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외 체계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Muuss, 1996). 본 논문의 후반에서 제시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외 체계 요인들이 주요 변수로 반영되어 있다.

III. 생태학적 접근의 국내 연구사례

현재까지 진행된 우리나라의 연구는 주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주제를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의 생태학 모형에 근거한 연구 사례들뿐이다. 개입 프로그램으로 적용되어 효과가 검증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김리진(1999)의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생태 체계 변인 중 취업모의 친정 어머니와의 애착이라는 변수가 취업모 연령, 직장 근무조건, 융통성, 취업모의 학력, 배우자 양육 참여도, 자녀수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미시 체계 중 원 가족 변인인 친정 어머니와 애착을 생태 체계 변인 화합으로써 양육 스트레스 연구에서도 애착의 세대간 전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손화희(1998)는 재가복지 수혜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를 생태학적으로 접근한 결과, 개인 특성(노인의 성격과 자아 존중감)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이며, 그 다음으로 주거지역(독립주택 보다는 영구임대 아파트), 자녀의 효도 등 미시 체계가 영향을 미침을 밝힘으로써, 노인 복지의 개입 방향과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방향을 시사해 주었다. 손화희의 연구에서는 이 외에도 가족원의 소득, 재가복지 서비스 만족도, 시립 가정도우미의 도움, 자녀와 동거여부, 종교 유무의 순으로

재가 복지 수혜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였다.

도시 중산층 부부를 대상으로 아내 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를 수행한 손정영(1998)은 외체계, 거시 체계 변인보다는 유기체인 남편과 그의 미시 체계인 직장 및 가족에 아내 학대 원인의 대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연구 모형의 총 설명변량 38% 중 남편의 직무 스트레스(14%)와 남편의 결혼 만족도(9%)가 설명 변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아내 학대 현상은 주로 남편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가족과 직장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윤기영(1998)은 유치원아 어머니의 학부모 역할인식을 생태학적으로 접근한 결과, 유치원아 어머니의 학부모 역할은 사회적 맥락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결론짓고 그러한 연구에 생태학적 접근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부모 역할이 가정, 교육기관, 사회가 상호 작용하는 상황인 만큼 다양한 체계 변인의 영향을 받으며, 세 측면으로 분류하여 개념화한 학부모 역할인식의 모든 차원에서 어머니의 미시체계를 포함한 생태학적 체계 변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점과, 또 세 인식 측면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설명력은 높은 점에서 생태학적 접근의 적절성이 확인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의 생태학 모형을 사용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오은순, 1997), 탁아(윤종희, 1990), 영유아 양육환경(이영외, 1994), 도시와 농촌 아동의 학습준비도(정계숙, 1990), 아동의 창의성 발달(조성연, 1990), 경제 위기 하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최명선, 1998), 거동 불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손화희 외, 2000)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 작업이 진행되었다.

IV. 생태학적 접근의 국외 개입 프로그램: 가족-지역사회 연결 개입 프로그램

1. 코넬대의 가족문제 프로젝트

Cockran(1988)과 Bronfenbrenner가 개발한 코넬대

의 가족문제 프로젝트는 생태학 모형을 사용하여 고안한 매우 방대한 가족 개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가족이 처한 문제점은 무시하고 대신 그들이 가진 장점에 입각하여 생태학적인 시각에서 부모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접근을 피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연구자들은 먼저 (a) 대상 가족의 부모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주고 (b) 부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이웃 및 지역 사회와 교환하는 것을 활성화시켰으며 (c) 가족 내 부모-자녀간 활동을 격려하고 강화하는 한편 (d) 사회적 사회적 지원망을 활성화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e)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녀들에게 협조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자들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성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더욱 잘 이해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 연구의 변수들을 재조직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유기체 내부 변수보다는 부모와 자녀라는 각각의 미시 체계, 부모의 사회적 사회적 관계망 및 가정-학교간 의사 소통이라는 두 개의 중간 체계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더 큰 광역의 체계(예: 사회적 관계망, 이웃, 학교, 직장)들의 영향력을 중재할 수 있는 부모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다.

결과 이 프로젝트의 주요 구성 요소인 가족 능력 강화 프로그램은 사회적 지원망, 부모-자녀 활동, 가정-학교간 의사 소통, 자녀의 학업 성취 등의 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출발부터 연구자들이 내세웠던 두 개의 기본가정, 즉 (a) "모든 가족은 그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졌다"와 (b) "자녀양육에 관한 한 가장 이용가치가 있고 타당한 지식은 대학 교수나 다른 전문가들의 두뇌나 책보다는 지역 사회 안에서, 세대간에 걸쳐,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그리고 인종적 문화적 전통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2.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지역사회 연결 프로그램

급격히 증가하는 미국의 아동 학대를 다루기 위하여 Shay(1989)는 가족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개입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이것이 부모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 연구는 Garbarino(1977)가 설계한 아동 학대의 생태학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Shay는 특히 지역 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 학대 방지 프로그램에 부모를 참여하게 한 후 그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였다. 결과, 아동 학대 행동과 상관이 있다고 파악된 부모의 행동과 태도 변수에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참고로 Garbarino가 제안한 아동 학대의 생태학 모형은 개념적 연구 모형으로서 다음에 열거한 변수들을 포함하는 정밀하게 고안된 설계이었다:

- (가) 아동 방임 및 학대와 관련된 지역 사회 환경요인:
 - 사회 경제적 요인(예: 수입출처, 주거 환경, 근무 패턴 등);
 - 사회 인구학적 요인(예: 이웃과 지역 사회의 특성에 대한 주민의 가치관과 태도);
 - 역사적 요인(예: 지역주민에 대한 사적 관계 및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발달 경향)
- (나) 이웃의 지원 체계 요인:
 - 이용가능한 가족 복지 서비스(예: 아동 보호 서비스, 건강 관련 서비스);
 - 문제가 있는 가족에 대한 피드백(예: 비행 행동에 대한 감독);
 - 이웃의 교제 방식에 관한 요인(예: 자연 발생적 이웃인가,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이웃인가?)
- (다) 가족 특성 요인:
 - ㉠ 일상 생활 스트레스 요인(예: 건강 상태, 잘못된 인간 관계 등 적응, 조절 및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건: 신체 장애, 정서 문제, 건강 문제 등 “특별한 요구”를 가진 가족원이 있는 경우: 저소득, 고밀도 주거, 편

부모 등 문제가 있는 사회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 결혼 연령, 첫 자녀 출산 등과 같이 가족 생활 주기 상 주요사건이 일어나는 타이밍).

- ㉡ 지원 요인(예: 사회 관계망--규모, 이질성, 가까운 정도, 상호 연결 정도, 지속성, 가족의 대인 관계에 대한 규범과 성향; 교회 집단, 아동 연구 집단, 클럽 등 제도 및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및 장기간에 걸친 소속감).

이와 같은 변수를 근거로 하여 Garbarino는 네 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a) 사회경제적 요인, 인구학적 자료에 입각하여 스크리닝 된 ‘위험에 처한’ 가족을 파악하는 연구; (b) 이러한 가족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이 때는 Helfer 등 (1976)이 개발한 아동 학대 성향이 있는 부모에게 실시하는 스크리닝 도구를 사용한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a) 주요 가족 사건 및 역할 전환의 시기와 시간적인 연속성을 규명하기 위한 가족 일대기 연구; (b) 아동 학대와 관련되는 가족 발달사가 지니는 영향력을 진단하기 위한 출생 동시 집단 연구이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생태학적으로 대비되는 특성을 지닌 이웃들간에 나타날 수 있는 양육자로서 느끼는 무능력함과 사회적 고립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에 관한 횡단 연구이다. 네 번째로 제안된 프로젝트는 (a) 가족의 양육자로서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험 연구; (b) “자연적인 이웃들”에 의해 개별 가족에 대한 감시·감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아동 학대 사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서 지원체계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험 연구이다.

그는 이러한 변수들과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분석 단위, 사용될 자료를 선정하는 기준, 방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까지 세밀하게 덧붙였다. Garbarino의 아동 학대의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제안은 12년 후 Shay가 실제로 이를 프로젝트 화하여 수행함으로써 Garbarino의 개념적 모델의 타당성을 현실적으로 검증하였다.

3. 자녀 위탁 비율을 감소시킨 가정-기반 서비스 프로그램

뉴욕시 동부 가족 조합이 위치한 지역과 디트로이트시 P·A·C·T(Parent And Child Together) 프로그램이 실시된 지역은 만성적 빈곤, 열악한 주거, 열악한 건강 상태, 대인간 갈등, 약물 오남용 등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전형적인 위기 집단이 거주하는 곳이다(Ziefert, 1985). 이 지역들에서 실시된 프로그램도 코넬대의 가족 사건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문제점 대신 그들이 가진 장점과 성장 추구적인 힘에 개입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가 조직의 구조, 다른 사회 체계 및 물리적 환경에 골고루 영향을 주도록 고안되었다.

이들이 시도한 다양한 내용의 개입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판명된 프로그램은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직접적·미시적 서비스인 가정도우미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가족 조합에서 파견된 가정 도우미는 아동 돌보기, 조리, 가사 업무와 같은 가사 노동 기술과 금전 관리, 영양, 자녀 양육을 부모들에게 가르쳤다. 이들 가족들에게는 비상시에 밤이나 주말에도 가정 도우미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다. 이 지역은 원래 390 가족 중 141 가족이나 자녀의 위탁 보호 서비스를 요청하는 위기 집단이었으나, 이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단지 10 가족만 그러한 조치를 희망하였고, 그러한 조치도 단지 몇 개월만 위탁하는 임시 조치이었다.

디트로이트시의 P·A·C·T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에게 조직적, 위생적, 보상적인 가정 환경을 가꾸도록 하고, 자녀 양육 및 부모 역할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가족 개개인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향상시켜주고, 지역 사회 및 재정적·사회적 자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역기능적 행동을 제거하도록 도와주고, 각자의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 역시 뉴욕시 가족 조합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62%의 참여 가족이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변화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가족 개입 프로그램이 가진 공통점은 가족과 복지사 간에 서로 서로 협동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었고, 서비스가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었으며, 개입 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개입 가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서비스였다. 또한 프로그램이 조화롭게 통합되었고, 문화와 지역사회에 민감한 특징을 공통적으로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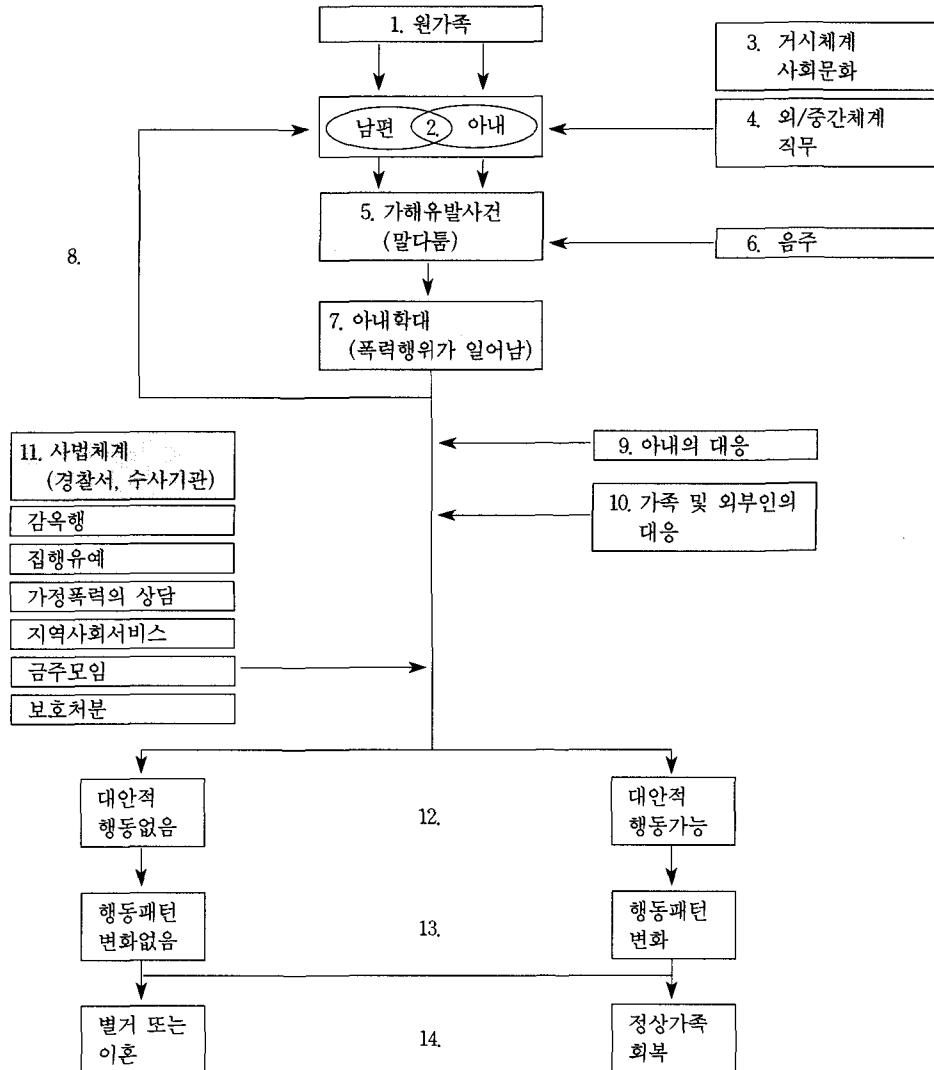
4.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입과 생태학적 관점의 제언

Hong(1993)은 “폭력 남편: 한인 이민 가정의 아내 구타에 대한 생태 체계적 분석”에서 브론펜브레너의 네 체계에 해당하는 남편 관련 요인들을 변수화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 중 아내 구타 남성 51명 (경찰에 신고되어 판사가 의무적 상담을 받도록 명령한 남편들)을 대상으로 남편의 네 체계 요인들과 아내 구타 정도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가해자의 거시 체계로는 사회 문화적 요인인 한국의 전통주의 가치관, 미국 문화에 노출 정도, 미국 음식 선호도, 한국 문화에 노출 정도, 한국 음식 선호도 등을 반영하였고, 중간 체계 및 외 체계는 이민 생활 및 직업 영역에서 영어 구사력, 이민 생활에 대한 만족도, 직업 만족도, 한국으로 귀국 여부 고려 등을 변수화 하였다. 미시 체계는 부부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부의 성 역할, 부부 행복도, 부부 응집력, 부부 적응력을 하위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각 체계 요인들과 폭력의 정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또한 원 가족과의 관계(과거)도 변수화 하였는데 아버지와 친밀도, 어머니와 친밀도, 부모의 결혼 행복도, 어렸을 적에 경험한 학대의 정도, 어렸을 적에 학대에 노출된 정도, 체벌 경험과 폭력 정도에 대한 상관 관계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남편의 폭력 정도는 (a) 한국의 전통주의적 태도를 더 많이 갖고 있을수록 (b) 미국 문화에 적응을 못할수록 (c) 한국 문화--신문, 라디오, 비디오 등--에 고착될수록 (d) 영어를 잘 못할수록 (e) 부부 행복도가 낮을수록 (f) 부부의 성 역할이 고정적일수록 (g) 부부 응집력이 낮을수록 (h) 부

<표 1> 가정폭력 패턴 변화를 위한 연계도



(인용 출처: Hong, 1993, p. 240)

부 적응력이 낮을수록 (i) 부모의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못했거나 어머니와 친밀감이 낮을수록 (j) 어렸을 적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폭력을 경험했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미국 거주기간, 연령, 수입, 교육정도와 폭력의 정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 현재의 부부관계(부부 체계) (b) 자라온 문화적 배경과 전통적 가치관(거시 체계) (c) 어렸을 때 폭력 경험, 부모의 결혼생활이나 부모와의 친밀감 정도(부모-자녀 체계) (d) 이민 생

활의 적응(중간 체계, 외 체계)이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준다. 즉 폭력의 정도는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가정 폭력 가해자와 연관된 다양한 체계를 변화시킬 때에야 만이 폭력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새로운 행동 패턴을 배울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는 나아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 패턴 변화를 위한 연계도를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a) 부부 폭력(Couple violence)과 생태 체계의 관계(과정 1-4) (b) 첫 번째 폭력 발생과 폭력의 정착(과정 5-8), (c) 선택의 시점과 체계를 떠남(과정 9-11) (d) 문제 해결 또는 변화 없음(<표 1>의 과정 12-14)을 구조화하고, 이 연계도에 근거하여 가해자 상담 교육을 실시한 후, 가정 폭력 패턴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실질적 제안을 하였다.

첫 번째 제안은 법체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즉 법체계의 개입이 곧 가정폭력 패턴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법 적용이나 상담 프로그램은 오히려 피해 여성에게 더 큰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신고자가 누구냐에 따라(가족 또는 주위 사람) 부부 관계의 회복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가족 신고의 경우, 폭력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해어지는 경향이 높고, 남이 신고했을 때는 행동의 변화와 함께 가족 관계의 회복 경향이 높았다.

둘째는 패턴화된 폭력 행동과 그것이 일정한 주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연관된 모든 체계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으로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거시 체계, 즉 전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 가정 교육, 그리고 사회 교육, 특히 부모들의 아동 체벌이나 폭력이 잠재적 폭력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가정 폭력의 특성상 폭력 행사자와 피해자 사이에 폭력의 대체 행동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해자를

위한 분노 조절(Anger control)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프로그램, 긴장 이완 기술(Relaxation skills)은 폭력 발생 가능성을 많이 줄여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네째는 피해자에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피해자 스스로 새로운 대처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폭력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를 위한 쉼터나 보호소 등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Hong은 생태 체계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 폭력 방지는 불가능함을 지적하면서 생태학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는 동시에 관련된 모든 체계와의 상호 연관성 및 복잡성, 그리고 관계를 상호 순환의 원리(Feedback)에 입각하여, 특히 가정 폭력의 주기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V. 결론 및 제언²⁾

본 연구에서 인용한 다양한 연구사례와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청소년 복지 문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아동 복지 문제, 가정 폭력과 관련된 여성 복지 문제, 미혼모, 취업모 및 빈곤·위기 가족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들은 관련된 개인이나 개별 가족이 혼자 노력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한 변수간의 인과 관계를 가정하는 연구 모형으로는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어렵다.

또한 이제까지 소개된 생태학적으로 접근된 연구 사례들과 개입 프로그램이 예시하는 가족 및 개인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주제는 생태학 모형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특

2) 본 란에서는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을 진단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가정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 할 것이나, 그 작업은 본 연구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므로 추후 연구 과제가 되기를 희망하며,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둔다.

성이 바로 광범위한 쟁점을 다루어야 하는 가정복지에 대한 접근법으로 생태학적 접근이 유용하다고 보는 본 연구의 제안이다. 이 이론은 연구 조사와 측정 방법이 짜임새 있게 발달된 모형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 작업을 가능하게 해 준다.

생태학적 접근은 가정복지에 관련된 복잡한 쟁점들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조망하게 해준다. 그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태학적 접근의 구성요소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생태학적 접근은 유기체와 환경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호혜적인 적응에 초점을 둔다. 둘째, 생태학적 접근은 하나의 체계가 더 큰 체계 안에 겹겹이 포개어진 상호 작용적 구조로 형상화되어 있어, 유기체가 직접 경험하는 현실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상호의존적인 체계들간의 상호작용임을 확인해 준다(Bronfenbrenner, 1976). 셋째, 생태학적 접근은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의 “질”과 그 “질”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쟁점으로 삼고 있다(Willems, 1975). 넷째, 생태학적 접근은 가족 및 그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데 있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 인구학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들은 결국 환경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pure context-free) 인간 발달은 이루어 질 수 없다(Garbarino, 1977)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연구 접근법과의 차이점은 문제의 해결책을 “맥락 내에서” 발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대신 인간 유기체의 최근접 환경에 대한 조작과 적응이 광역 환경으로부터 발산되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전제 하에서 인간과 체계간, 또는 체계들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학적 접근법에서 주 효과는 상호작용효과가 된다.

이러한 주장 안에는 본 연구의 여러 개입 프로그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통합적인 겹 구조 모델 (the holistic model of nested systems)이 방법론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겹 구조 때문에 생태학적 모델은 Linear 모델들과는 달리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된다.

기존 연구 접근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델이 산만하고 복잡해 보여 연구문제 자체가 모호해 보이기도 하나 생태학자들은 그럼으로써 오히려 탈 맥락적이지 않고 유기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설명력이 더 풍부해진다고 보고 있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 모형이 제시한 이론적 관점은 가볍고 피상적인 “환경주의”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의 관점 안에서는 변수들 또는 체계들간의 상관관계나 상호작용이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의 인간 발달에 대한 현상학적인 정의, 생태학적 타당성의 개념 정의를 검토해 보면 그의 이론의 독특성이 더욱 부각된다. 그의 관점은 인간발달에 대해 우리가 가진 부분적이고도 제한적인 차원의 지식에 많은 것을 더해준다. 유형(pattern)이나 맥락(context)에 대한 강조도 결국은 지식은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형 및 맥락에 대해서 예측력을 가지고 설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원자(atom)는 원자로 존재할 뿐, 그것들이 연합되어야 독특한 특성을 갖춘 물질이 될 수 있듯이 인간 발달에 관해 단편적으로 발견된 지식들도 결국은 연합되어, 복지라는 전체 현상을 조망하는데 쓰여야 된다고 본다. 각각의 시간과 공간에 흩어져 있는 단편적이고도 부분적인 지식의 편린들이 지식들간의 연관성을 거칠 수 있는 가정 복지의 쟁점들에 적용되어,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이용됨으로써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가정 복지라는 과제가 안고 있는 복합적이고도 광범위한 쟁점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 모형이 적절하고도 이용 가능한 대안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동배, 권중돈(1999).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김리진, 윤중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 대안가정학회지, 38(12), 47-58.
- 김양희(2000).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역할. 제 53차 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1-34.
- 성영혜, 김연진(1998). 아동복지. 서울: 동문사.
- 손정영(1998). 아내 학대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화희(1998). 재가복지 수혜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화희, 윤종희, 김덕성, 안령미(2000). 거동 불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 노년학회지, 20(1), 93-112.
- 오은순(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기영(1998). 유치원아 어머니의 학부모 역할인식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종희(1990). 타아의 과제: 생태학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세미나 자료.
- 윤종희(1991). 가족학 연구와 가족 생태학적 접근. 가족학 연구회(편)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 교문사. 197-226.
- 윤종희(1994). 아동 가족연구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의 적용. 인간 생태학적 측면에서의 가정학.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 자료.
- 이 영, 신은주, 나중혜(1994).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아동학회지, 15(2), 37-54.
- 장인협(1981). 사회복지개론. 한국사회개발연구소.
- 정계숙(1990). 도시와 농촌 아동의 학습 준비도를 결정하는 생태학적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옥분, 윤종희, 도현심(역)(1999). 청년발달의 이론. 서울: 양서원.
- 조성연(1990). 아동의 창의성 발달 및 이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흥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1997). 가족 복지학. 서울: 학지사.
- 최명선(1998). 경제위기 하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의 구조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1.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 Bronfenbrenner, U. (1988). Foreword. In A. R. Pence(Ed.), *Ecological Research with Children and Families* (pp. ix-xix).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Press.
- Bronfenbrenner, U. (1994). 인간 생태학: 개념과 관점. 인간 생태학적 측면에서의 가정학.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 자료.
- Bronfenbrenner, U.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 T. Husen & T. N. Postlethwaite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2nd ed.). NY: Elsevier.
- Bronfenbrenner, U. & Crouter, A. C. (1983).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models in developmental research.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History, Theory, and Methods*(Vol. 1). NY: Wiley. pp.357-414.
- Cockran, M. (1988). Between cause and effect: The ecology of program impact. In A. R. Pence(Ed.), *Ecological Research with Children and Families* (pp. 143-16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Press.
- Garbarino, J. (1977).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conceptual model for

-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721-736.
- Germain, C. B. & Gitterman, A. (1987). Ecological perspectives. In A. Minahan et al.(ed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MD: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Helfer, R., J. McKinney, & Kempe (1976). Arresting or freez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In R. Helfer and C. H. Kempe(Eds.), *Child Abuse and Neglect: The Family and the Community*(pp. 55-74).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 Hong, I. J. (1993). Male batterers: An ecosystemic analysis of conjugal violence in the Korean immigrant family. Doctoral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Kandel, D. B. (1986). Processes of peer influences in adolescence. In R. K. Silbereisen et al. (Eds.), *Development as action in content*. Berlin: Springer Verlag.
- Muuss, R. E. (Ed.) (1996). *Theories of Adolescence*. NY: McGraw-Hill.
- NASW (1995).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 Shay, S. (1989). The influences of a community prevention program on parenting beliefs and parental competence.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Sontag, M. S. (1993). Human Ecology Theory. In Boss, P. G. et. al.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New York: Plenum Press.
- Willems, E. (1975). Relations of models to methods in behavioral ecolog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conferenc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Guilford, Surrey, England, July 13-19.
- Ziefert, M. (1985). Homemaker and day-care services. In J. Laird & A. Hartman (Eds.), *A handbook of child welfare: Context, knowledge, and practice*(pp. 417-438). NY: The Free Press.